KU-The Future
KOREA UNIVERSITY
1905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03 신학기 안내/교육단신
04 교육과 세계/교육현장노트
05 교육과 공동체
06 교육과 스승
07 문화 탐방
08 교육대학원 정보

학사일정

3월
- 1(일) 삼일절(공휴일)
- 2(월)~6(금) 1학기 종합시험 인터넷 접수
- 2(월)~4.10(금) 1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 2(월)~13(금) 기 수료자 연구지도비 납부
- 16(월)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 16(월)~20(금)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학비감면 신청
- 16(월)~24(화)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 16(월)~24(화) 학위청구방식 신청기간 (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
- 16(월)~24(화) 유사전공과목 신청기간(4, 5학기생)
- 18(수)~23(월) 1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 30(월)~4.9(목)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4월
- 10(금) 1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 10(금) 1학기 종합시험 시행
- 15(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13(월)~20(월) 2020학년도 후기 입학원서 접수
- 13(월)~22(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 30(목) 석가탄신일(공휴일)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0년 3월 5일(목)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64호(월간)

초점 2020학년도 1학기 '초점' 지면은 '미래교육과 교사'라는 주제로 '2019 KU 예비교사 엑스포'에서 특강을 진행한 전문가 5인과의 인터뷰 기사를 연속해서 게재합니다.

교사를 꿈꾸는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과 제언

강용철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꿈'이 있으셨나요?

고백하자면 저는 '교사로서의 꿈'이 없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제 꿈이었습니다. 교사가 되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날지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교사가 되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긍정적인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사가 되고 보니, 정신없이 휘둘리고 준비 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괴로워했습니다.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러분께서는 목표가 없이 열심히 하거나 실력이 없이 열정을 발휘하는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교사로 살아가고 싶은지 꿈꾸시기 바랍니다.

| '좋은 수업'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학 이론과 현장 상황을 탐구하면서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동료들과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수업을 만드는 길입니다.

특히 교사가 된 후에는 본인이 생각한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수업 준비 의식(ritual)'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출근을 하면 먼저 교과서와 자료를 놓고 그날의 수업을 준비합니다. 바쁜 일과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수업을 향해 도전'하는 저만의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영혼의 희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 수업의 변화: 수업의 메가트렌드가 보이시나요?

직접 교수법이 교육을 주도하던 시대에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소위 '소대장 유형'의 교사가 인정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의 형태로, 학생들이 지식을 많이 외우고 문제를 열심히 풀며 수업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아는 것'이 곧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사는 '영화감독 유형'이 되어야 합니다. 교과서는 시나리오가, 학생들은 배우가, 교사는 감독이 되어, 하나의 수업이 곧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사는 가르치면서 동시에 학생을 배움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Less teaching! More joining!'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구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실천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물을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만든 문화유산 해설을 실제 유적지에 QR 코드로 소개하고, 건의문을 배웠다면 직접 건의 내용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보냅니다. 이처럼 삶의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배움을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식과 생활을 연결하는 실천지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교사는 '코치 유형'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르치고 안내하며, 때로는 함께 탐색하고 같이 해결하며 학생들과 성장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 다양한 교육정책이 도입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정보통신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수업에 대한 관점 바꾸기

대부분의 교사는 수업할 때 '교실'이라는 관점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학생과 공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에 '학습실'이라는 관점을 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수업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공부하는지 돋보기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날숨과 학생의 들숨이 맞아떨어져서 함께 호흡하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 수업 디자인과 시뮬레이션

초임 교사 시절에 저는 교과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과서만 연구했습니다. 교과서 위에 당당하게 올라서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에게 맞게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수업 디자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내용을 가르칠 때도 다양한 수업 전략과 모형을 구상·연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아야 합니다.

| 의사소통 활성화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짝이나 조원과, 때로는 학급 구성원 전체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전략을 고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 교육의 특성상 '듣기'를 가장 많이 하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표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운 내용을 입으로 말해보고 서로에게 가르치는 활동을 할 때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 '안전한 침묵'보다 '용기 있는 대화'가 가치 있다는 점을 깨우쳐 주셨으면 합니다.

| 다양한 형태의 질문법 연구

정답만 주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지식의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질문이 있을 때 배움의 욕구는 빛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에서 청중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꿈꾸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공부하고 고민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제20기 교육경영 AMP
(구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1. 모집인원 : 40명 내외
2. 응시자격 : 교육기관 경영자, 교육 관련 기업대표 및 임직원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교육경영분야에 관심있는 분)
3. 모집일정 : 2019년 12월 2일(월) ~ 정원 충원 시 마감
4. 교육안내 : ● 교육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2월 말까지(1년 과정)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20분
5. 등 록 금 : 450만원(1학기)

▶ 과정특전
·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원 자격 부여 등
▶ 접수방법 :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을 작성 후 우편,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문 의 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0,1373)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현황 및 대응 지침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코로나19'로 불리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기침, 호흡곤란을 동반,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염은 주로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할 때 발생하게 된다.

1월 20일 국내 첫 번째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확진자 방문 기관 소독 실시 및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 시키는 등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 25일 오전 9시 기준 확진 893명, 검사진행 13,273명, 격리해제 22명, 사망자 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대학교에 개강일을 늦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또한 당초 3월 2일(월)이었던 개강일을 3월 16일(월)로, 6월 19일(금)이었던 종강일을 6월 26일(금)로 각각 2주, 1주씩 연기하였다.

또한,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발표하여 교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유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등교가 금지되며, 선별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학교로 전화 보고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증상자라 할지라도 후베이성 체류 후 귀국일 기준 최소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등교가 전면 금지된다. 후베이성 외 중국 내 기타 지역을 체류한 경우에도 최소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등교 자제가 권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을 포함한 태국, 싱가폴 등 동남아 지역 체류 후 귀국한 경우에는 등교는 가능하나 학교 보건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개강을 앞둔 현 시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며, 마스크 착용 및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각 개인은 위생에 철저히 함으로써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2019학년도 전기 사범대·교육대학원 우수 졸업자 시상식

지난 2월 25일(화) 오전 11시 운초우선교육관 교육대학원장실에서 2019학년도 전기 사범대·교육대학원 우수 졸업자 시상식이 있었다. 정태구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박종훈 교육대학원 부원장, 수상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상이 수여되었다.

이번 우수 졸업자 총장상은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영서 학우와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오한수 원우가 수상했다.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영서 학우는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며 "고려대학교에서 보냈던 4년간의 시간은 그 자체로도 소중했지만 이렇게 총장상이라는 아름다운 결실까지 맺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다. 고대인으로서 얻었던 크고 작은 배움을 통해 더욱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여, 교육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오한수 원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위 수여식이 취소돼 아쉬움이 컸는데, 이렇게 뜻밖의 상을 받아 기쁜 마음이 든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행운으로 바뀔 때만큼 기쁜 일이 없는데, 이런 행운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2020 QS 아시아대학평가 국내 사립대학 1위 선정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이하 QS)가 최근 발표한 '2020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고려대학교가 사립대학 1위, 전체 순위 12위를 차지했다.

QS는 1994년부터 매년 세계 대학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해 왔다. QS 아시아대학평가 순위는 아시아대학만을 대상으로 QS가 2009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 국제연구협력 지표가 추가되면서 11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본교는 해당 대학이 다른 나라의 대학들과 얼마나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하는지 살펴보는 '국제연구협력(IRN)' 지표에서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다.

지표별 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QS 세계대학 순위보다 더 세분화된 평가이다.

△학계 평판도(30%) 93.4점 △졸업생 평판도(20%) 98.5점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10%) 92.2점 △논문당 피인용 수(10%) 94.1점 △교원당 논문 수(5%) 54.6점 △박사학위 소지 교원 비율(5%) 96점 △외국인 교수 비율(2.5%) 45.3점 △외국인 학생 비율(2.5%) 90.7점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수 비율(2.5%) 99.9점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2.5%) 98.8점 △국제연구협력(10%) 99점

한편, 본교는 지난 세계대학 평가에서 교육학 분야 국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4년 연속 아시아대학평가 1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사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교육학과 아시아에듀허브사업단 BK21플러스 우수사업단 선정

BK(두뇌한국)21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본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아시아에듀허브사업단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본 사업단은 '아시아 최고의 교육학 거점 대학원 육성(Edu-hub in Asia)'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동아시아 최고의 교육학 거점 대학원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를 위해 3영역 10전공으로 교육학 전공을 재구조화하였으며 졸업 내규 강화, 교육과정 개편, 영어 강의 비율 확대, 학위논문의 영어 작성 등 교육학 프로그램의 글로벌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한 융복합화와 창조화 교육을 추진해왔다.

또한,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및 취업의 질적 우수성 증진, 장단기 국제적 교육·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특히 노력해 왔다.

'아시아 교육 지도자 과정(AELC)'을 통해 아시아 공동학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국 5개 대학(Korea, Tohoku, Nanjing, National Chengchi,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이 함께 2014년부터 매해 두 차례씩 공동 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베이징사범대학 및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공동으로 교육 및 학술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한중일 BeSeTo 학술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적·학술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매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

한편, 교육학과 아시아에듀허브사업단은 이번에 BK21플러스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됨으로써 사업 예산을 증액 지원 받을 예정이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2020학년도 등록금 일정 안내

2020학년도 등록금 납부 일정이 공지되었다.

개강일은 2주 연기되었으나 본 일정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 학생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재학생 정규 등록 일정(2월 21~27일)의 재학생은 재입학생과 복학생을 포함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월	일	요일	시각	내용
2019.12	11~13	수~금	16:00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수시) 등록
	16~20	월~금	16:00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1	8~10	수~금	16:00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특수/전문대학원 신입생 등록
	16~17	목~금	16:00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특수/전문대학원 신입생 미등록 충원 등록
2	5~7	수~금	16:00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정시) 등록
	5~7	수~금	16:00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수시) 차액 등록
	5~7	수~금	16:00	2020학년도 학부 편입생 등록
	10~17	월~금	21:00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19~26	수~수	16:00	2020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온라인 신청
	21~27	금~목	16:00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정규 등록
3	3~5	화~목	16:00	2020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1차 등록
	6~11	금~수	12:00	2020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 학점등록 신청
	11~13	수~금	16:00	2020학년도 재학생 추가(최종) 등록
	12~13	목~금	16:00	2020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자 등록
4	1~3	수~금	16:00	2020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2차 등록
	~20	월	16:00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정산 환불(예정)
5	4~7	월~목	16:00	2020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3차 등록
	6~7	금	16:00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 등록(예정)
6	1~3	월~수	16:00	2020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4차 등록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020학년도 제1차 교육봉사 세미나

2020학년도 제1차 교육봉사 세미나가 3월 21일(토) 오후 1시 운초우선교육관 20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09학번부터는 본교에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봉사(2학점, 60시간)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이를 학점으로 인정 받으려면 봉사 시행 전 반드시 교내에서 진행하는 교육봉사 세미나에 참가하여야 한다. 교육봉사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교육봉사를 시행해버리는 경우, 교육봉사 학점 인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육봉사 세미나는 교육봉사 시작 전 1회만 참석하면 된다.

따라서 교육봉사 이수 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1) 세미나 참석
⇩
(2) 계획서 제출 및 승인
⇩
(3) 봉사 수행(일지작성)
⇩
(4) 일지 및 확인서 제출
⇩
(5) 수강신청

한편, 교육봉사 세미나 참석 희망자는 지난 2월 11일(월) 오후 3시부터 3월 2일(월) 오전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받았다.

교육봉사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교육봉사 일지가 배부될 예정이며, 교육봉사 세미나는 교육봉사 강연, 운영지침 안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교직팀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290-1333~1335)로 문의할 수 있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2020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 일정 안내

〈2020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사 일정표〉

년월	일	요일	학사 내용
1	1	수	신정(공휴일)
	6~8	월~수	완제본 논문 접수
	24~26	금~일	설날(공휴일)
2	1~25	토~화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18	화	2020학년도 전기 입학식 (행사취소)
	20~24	목~월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21~27	금~목	2020학년도 1학기 등록
	25	화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행사취소)
	25	화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만료
3	1	일	삼일절(공휴일)
	2~6	월~금	1학기 종합시험 인터넷 접수(2020년 4월 시행)
	2~4.10	월~금	1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2~13	월~금	기 수료자 연구지도비 납부
	16	월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16~20	월~금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학비감면 신청
	16~24	월~화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16~24	월~화	학위청구방식 신청기간(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
	16~24	월~화	유사전공과목 신청기간(4, 5학기생)
	18~23	수~월	1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30~4.9	월~목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4	10	금	1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10	금	1학기 종합시험 시행(예정)
	15	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3~20	월~월	2020학년도 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13~22	월~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예정)
	30	목	부처님오신날(공휴일)
5	4~8	월~금	1학기 중간고사
	5	화	개교기념일 · 어린이 날(공휴일)
	8	금	종합시험(4월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12~14	화~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16	토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20~6.5	수~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6	5	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6	토	현충일(공휴일)
	12	금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22~26	월~금	1학기 기말고사
	29	월	여름방학 시작
7	1~3	수~금	완제본 논문 접수
8	3~25	월~화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15	토	광복절(공휴일)
	20	목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식
	21~26	금~수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8	21~28	금~금	2020학년도 2학기 등록
	25	화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5	화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만료
9	1	화	2020학년도 2학기 개강
	1~7	화~월	2학기 종합시험 인터넷 접수(2020년 10월 시행)
	1~10.16	화~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1~11	화~금	기 수료자 연구지도비 납부
	1~9	화~수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1~9	화~수	학위청구방식 신청기간(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
	1~9	화~수	유사전공과목 신청기간(4,5학기생)
	2~7	수~월	2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14~18	월~금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학비감면 신청
	25~26	금~토	정기 고·연전(예정)
	30	수	추석(공휴일)
10	1~2	목~금	추석(공휴일)
	3	토	개천절(공휴일)
	5~14	월~수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9	금	한글날(공휴일)
	12~19	월~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12~21	월~수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예정)
	16	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16	금	2학기 종합시험 시행(예정)
	20~26	화~월	2학기 중간고사
11	6	금	종합시험(10월 시험) 결과 발표(예정)
	10~12	화~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16~12.4	월~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21	토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12	4	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11	금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15~21	화~월	2학기 기말고사
	22	화	겨울방학 시작
	25	금	성탄절(공휴일)
21.1	1	금	신정(공휴일)
	4~6	월~수	완제본 논문 접수
21.2	1~25	월~목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11~13	목~토	설날(공휴일)
	18	목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식
	19~23	금~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19~25	금~목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25	목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5	목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만료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일자가 3월 2일(월)에서 3월 16일(월)로 2주 연기됨에 따라, 2020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사 일정 또한 조정되었다. 주요 학사 일정은 위의 표와 같다.

3월 16일(월) 개강과 함께 20일(금)까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학비 감면 신청이 이루어진다. 장학금 신청은 고려대학교 포털(http://portal.korea.ac.kr)의 '등록/장학' 메뉴 중 '교육대학원 장학금 신청'에 접속하여, 장학금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본 교육대학원의 모든 장학금, 학비 감면은 서류 검토 및 전공 주임 교수의 장학금 수혜자 선정 과정을 거쳐 사후 지급된다. 따라서 결과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장학금은 학적부에 기재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3월 16일(월)부터 3월 24일(화)까지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이 이루어진다.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3학기 재학생은 희망하는 지도교수와 면담 후 '지도교수 신청서' 양식에 날인을 받아 마감일까지 이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지도교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3학기 재학생은 같은 기간 동안 석사과정 학위청구방식(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을 신청해야 한다. 3학기 재학생이 학위 청구방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논문중심과정'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4, 5학기 재학생은 (영재및특수교육전공은 학기를 제한하지 않음) 이 기간에 유사전공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사전공과목이란 본인 전공 외 타 전공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가운데, 유사과목을 6학점까지 본인 전공의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 이는 본인이 작성하는 논문 내용 및 전공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유사전공과목 신청은 2020학년도 1학기에 수강 예정인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취득한 과목은 유사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학기 종합시험은 4월 10일(금)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시행되며, 합격자는 5월 8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종합시험에 이어 5월 4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는 1학기 중간고사가 실시된다. 5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는 2020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 자격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이번 학기 이수 예정자 포함)하고, 종합시험(교직, 전공, 외국어)에 합격한 자이다.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에는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 및 제출 승인서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심사용 논문 3부가 필요하다.

6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1학기 기말고사가 진행되며, 이 이후 29일(월)부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여름방학 기간에도 다양한 학사 관련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8월 3일(월)부터 25일(화)까지는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휴·복학 및 재입학 신청 기간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반 휴·복학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포털 '학적/졸업' 메뉴 가운데 '휴·복학 신청'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된다. 출산·육아 휴학, 자격 연수 휴학, 군 입대 휴학 및 군 제대 복학의 경우, 온라인에 증빙 서류(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휴학 신청서, 복학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증빙 서류(사본)와 함께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20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은 10월 16일(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0년 9월 1일(화)부터 7일(월)까지 반드시 종합시험 접수를 해야 한다. 교직 및 외국어 시험 면제 신청 기간은 9월 1일(화)부터 10월 16일(금)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여 신청 및 제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교육단신

2019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와 통일부는 학생과 교사들의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과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9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북한·통일 인식 등 20개 내외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는 초·중·고 598개교 63,859명을 대상(학생 66,042명, 교원 3,817명)으로 하여 우편 또는 방문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2020년 2월 11일에 발표되었다.

'북한에 대한 생각'이라는 질문에 '협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8%로 2018년 50.9% 대비 7.1%p 하락, 2017년 41.3% 대비 2.5%p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 이미지'를 '평화·화합'으로 응답한 비율은 34%였으며 17년도 32.0%, 18년도 33.9%에 비해 그 비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이 29.1%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7년도 14.7%, 18년도 21.6%였던 것에 비해 유의한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5%로 18년도 63.0%, 17년도 62.2%에 비해 각각 7.5%p, 6.7%p 가량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학교 통일교육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79.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 통일교육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 답변 비율은 61.9%로 이는 전년 대비 8.9%p 증가, 17년도 대비 1.7%p 하락한 수치였다. 또한, 교사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50.4%)', '통일교육 자료 보급(48.4%)', '교사의 전문성 향상(28.0%)', '학생·학부모 의식 개선(21.8%)'. '통일교육 시간 확보(21.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2019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와 비무장지대(DMZ) 등과 같은 평화·통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통일교육 연수를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통일교육 수업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 주간 등을 운영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제1회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1회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참신한 방법으로 학교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5개 학교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경제·사회·문화·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직을 말한다. 2013년 영림중학교(서울 구로구)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처음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한 이래로 현재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방과후학교, 특성화고 창업, 농산어촌 지역 연계, 학교 매점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 모델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확산하고 있다.

추진계획 수립·공고 (2019.12.) → 신청 접수 (2019.12.16.~2020.01.14.) → 심사 및 선정작 추천 (2020.01.17.) → 결과 발표 (2020.02.07.)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 경제 학습과 체험,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30개교가 참여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우수사례 선정은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극성, 파급성, 지속성, 사회 공헌 이상 4개의 평가 기준(각각 25점)을 바탕으로 서면 심사하였다. 그 후 대상(1개교), 최우수상(2개교), 우수상(1개교), 장려상(1개교)을 수여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삼각산고등학교(서울 강북구) 학교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대상 문구·도서 판매, '더불어 새싹기업 축제' 개최, 교내 '먹고 가게'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조합원 수도 상대적으로 많아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최우수상은 매점·카페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시장조사, 모의운영 등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탄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현암고등학교(경기 용인시)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생태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국사봉중학교(서울 동작구)가 수상하였다. 우수상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을 포함시켜 전교생이 참여한 금병초등학교(강원 춘천시)가, 장려상은 다른 협동조합과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구로고등학교(서울 구로구)가 수상하였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청년들의 진로 고민,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청년들이 진로 결정과 취업을 위해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로 교육 대상을 청년까지 확장하고, 이들을 위한 대학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신설하며,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2,324억 원이었던 예산 규모가 2020년에는 2,505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청년들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진로·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과정에 정부와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진로 결정부터 취·창업 역량 개발과 사회 진출 이후 후학습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며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학진로탐색학점제'를 새롭게 시행하고 '파란사다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의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대학진로탐색학점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진로 탐색 활동을 설계·수행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시범 운영(10개교) 이후 운영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해외 진로·직업 경험의 기회도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의 경우 올해 수행대학을 추가 선정(6개교)하여 총 1,600명에게 단기 해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창업을 위한 역량 개발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체 연계 교육, 창업 관련 교육과정 등 관련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 추진한다. 대학과 산업체가 맞춤형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여 채용을 협약하는 취업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맞춤형학과 협약반'을 40개 증설(일반대 20, 전문대 20)하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을 3개교 추가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업교육 거점대학' 선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추가 선정, '대학창업펀드' 조성, '학교기업 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취·창업을 희망하거나 사회 진출 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학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 3~4학년생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사다리 장학금(I유형)' 지원을 확대한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 결정부터 취·창업까지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교육과 세계

영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최정원
융합교육연구소 연구원
교육학 박사 (정보영재교육전공)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어느 학문 분야든 소프트웨어와 융합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이미 2014년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미취학 아동들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과 같은 나라도 합류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정보 교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정보 과목을 필수화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각자의 분야에 연결시켜 새로운 것, 필요한 것을 생산해 내는 능력을 함양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일찍이 시작했던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영국은 교육과정을 학습자 연령에 맞게 정리하고 교육 내용, 평가, 교육학, 교사교육, 교수학습자료 등을 포함하는 교육시스템 요소들 간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내용의 체계를 세운 이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2014년 발표했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육 내용

영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Computing(컴퓨팅)'이라는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우리의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을 혼합한 것과 유사하다.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추출하거나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하는 과정, 패턴을 찾아 구조화하는 과정, 추상화, 알고리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5-6학년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이러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5세 이전부터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1〉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 과정을 나타낸다. 5세 이전, 5-7세, 7-11세, 11-14세, 14-16세, 16-18세 나이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단계별로 점차 반복·확장되어 발전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알고리즘과 코딩을 통합한 것으로 5세부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6학년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순차, 선택, 반복, 변수, 입출력의 개념들이 7~11세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11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데이터 구조, 모듈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한다. 모델링이나 중첩제어구조 또한 14~16세에 포함되어 있어 도입 학령기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빠른 편이다.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세부 교육과정은 〈표2〉와 같다.

Pre 5	5-7	7-11	11-14	14-16	16-18
•Solving problems •Making predictions •Testing ideas •Planning •Checking •Changing strategy •Reviewing	•Algorithms •Logical reasoning	•Algorithms •Logical reasoning •Decomposition	•Algorithms •Logic •Abstraction	•Analysis •Logic •Algorithms •Decomposition •Abstraction •Evaluation	•Analysis •Logic •Algorithms •Decomposition •Abstraction •Criticality •Patterns •Efficiency •Specification

〈표1〉 컴퓨팅 사고력 함양 과정

Pre 5	5-7	7-11	11-14	14-16	16-18
	•Create, debug, predict •Sequence	•Design, write, debug •Accomplish goals •Sequence •Selection •Repetition •Variables •Input / output	•Design, evaluate •Model state and behaviour •Solve problems •Data structures •Modularity •Text-based •Low-level	•Design, write, test, debug, refine •Modelling •Sequence •Selection Iteration •Input, processing, output •Data types and structures •Modularity, API •Text-based	•Design, write, test •Explanations, correctness, efficiency •Data types •Data structures •Databases •Modularity, API •OO / FP

〈표2〉 프로그래밍 과정(알고리즘 + 코딩)

| 평가

영국은 평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업을 마칠 때 학생별로 성취수준에 도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 은행을 구축하는 Project Quantum을 진행 중이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돋보이는데, 약 8,500여 개의 문항이 개발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수업 주제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형성평가 문항, 학습 완료 후 맞춤형 종합 평가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 채점되고 학생의 진도나 오개념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수학습 전략

영국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교사는 잘 가르치기 위해 전공 지식뿐 아니라 교육학적 지식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상황, 학생 수준, 학생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연구에 근거하는 실직적인 데이터만으로 수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이 꾸준히 사고하도록 유도하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할 것인지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육할 때는 코드를 해석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코드에서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경험을 제공한 후 빈칸을 채워보고 코드를 작성해보는 방향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짝 프로그래밍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한다.

|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처럼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않기에 우수한 인재 양성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고유의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영국이 처한 상황과도 비슷하다.

영국은 이러한 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꾸준히 행하고 있으며, 교육목표·교수학습·평가가 일관성을 갖는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 노트

중학교 현장 이야기

김나영
영어교육과 졸업/을지중학교

학교현장에서 교사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는 가장 중요하다. 결국 교사는 이 두 가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므로 필자는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측면으로 나누어 중학교 현장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먼저 수업지도를 살펴보자. 수업은 생활지도의 첫 단추이며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에게 오롯이 주어지는 45분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준비된 수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 단원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한번에 인쇄해서 한 세트로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준비된 수업이라고 느낀다. 또한, 수업 준비에 있어 교사 간 자료공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영어과의 경우, 네이버 카페 '영어교사 공유나라'에서 각 출판사별로 현장에서 활용하는 학습지가 공유되고는 한다. 이때 학습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시된 아이디어와 학습 자료를 참고하되 자신이 현재 근무하는 학교나 교실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적절히 재해석·재창조 하면 보다 쉽고 전문성 있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 가면 자신만의 고유한 수업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또한, 수업에 즐거움을 느끼고 학업에 자신감이 붙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생활태도가 바뀌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도 본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이유, 향후 매진해야 할 목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생활지도이다. 생활지도는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가장 수고로움을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 관계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학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교사의 중재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교사를 신뢰한다. 그러면 교사의 생활지도도 비교적 수월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와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 학급회장(남녀 1명씩)이 선발된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공식적으로 반장 모임을 약 10~15분 정도 가진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 태도는 어떠한지, 학급 내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반장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면서 격려한다. 부모님께 가끔 학생이 잘한 일을 칭찬하는 칭찬 문자를 보내보는 것도 좋다. 중학생의 경우 학급 내에서 책임질 1인 1역을 미리 제시하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면, 학급일에 대해 자신이 할 일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며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호팀장(문 단속 관리), 멀티 플레이어(선생님이 시키는 것 무엇이든 하기), 유인물 팀장(학급 유인물 가져오기) 등이 있다.

생활지도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 중 하나는 원칙을 지키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다. 설령 아이들이 처음에는 교사의 훈육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서로 원칙을 지켜나가면 관계에 신뢰성이 생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잘못된 언행에 상처받기보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행동할까'라는 너그러운 마음이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언행 자체는 잘못된 것이므로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요즈음은 주변에서 다들 "힘드시겠어요."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만큼 중학교 현장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사 한 사람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현장에서의 이 작은 조언들이 교사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현장 탐방

‘글로벌통상융합과정’으로 국제화에 앞장서는 연수여자고등학교

이용환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사

‘글로벌 소통·협력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하는 ‘글로벌통상융합과정’은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연수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여자고등학교에서 글로벌통상융합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용환입니다. 연수여자고등학교는 1997년 개교한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지역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교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일의 꿈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학교’라는 교육비전 아래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곳곳을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이 몸과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교실제학교, 단위학교 영재학급, 진로중심학교,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거점형학교, 두드림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화 자율정책추진학교(2014~2017)’를 유치, ‘국제특화반’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글로벌통상융합과정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세계시민 선도학교, 유네스코 네트워크학교, 월드비전 협력학교 등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수여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수여자고등학교의 슬로건은 ‘BEYOND Education’, 즉 ‘교육을 넘어선 교육’입니다. 학생 모두가 미래 사회의 역량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ACES’ 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ACES’란 ‘Academic’, ‘Creative’, ‘Extensible’, ‘Sound’의 첫 글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실력 있는 인재(A-지성인), 기초지식과 전문영역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 도전 정신, 문제해결능력을 고루 갖춘 융합형 인재(C-창조인), 세계 시민과 민주 시민 의식은 물론 외국어 능력까지 겸비한 글로벌 인재(E-세계인),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신체를 지닌 인재(S-덕성인, 건강인).

교육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에게는 ‘ACES 명품 인재상’을 수여하는 한편, 자신의 역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인재로서의 자질을 보다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연수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통상융합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소통·협력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하는 글로벌통상융합과정은 사회 및 외국어 과목에 대한 심화과정 개설, 국제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글로벌통상융합과정 반에 지원하여 교양과목으로 실용경제를 수강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는 사회탐구방법, 사회과제연구는 물론 국제경제, 국제법,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등을 사회과 심화과목으로 개설하는 한편,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등을 외국어 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학년을 진급해 감에 따라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인문학 향연’, ‘독서·토론 캠프’, ‘경제·경영 캠프’, ‘세계 시민 교육 캠프’, ‘의정아카데미’, ‘서사 평화·통일 교육 캠프’, ‘GCF 환경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로부터 피드백을 얻어 교육과정 변경 및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와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통상융합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이 글로벌통상융합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중점과정 및 과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의 시간을 거친 뒤 글로벌통상융합과정 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선택한 글로벌통상융합과정 반은 3개 학년 동안 그 과정이 유지되므로,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교육과정이 토의, 토론, 실습, 체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겪으며 한 명의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글로벌통상융합과정를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분명 선생님들의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목만 증가하다 보니 선생님 한 분이 3~4과목 또는 그 이상을 지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글로벌통상융합과정을 위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범위에서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예산 사용의 자율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생·학부모님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오해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글로벌통상융합과정에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일부 학생에게 특혜가 부여된다는 등 정보의 부재 또는 선택적 정보 수집으로 인한 오해가 운영에 어려움을 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 글로벌통상융합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연수여자고등학교는 인근 지역에서 국제반 운영 또는 국제화 역량 강화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정성적 평가뿐 아니라 매년 실시되고 있는 운영 평가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가 약 60%, ‘대체로 그렇다’가 약 20~30%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통상융합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재학생이라면 마음속에 ‘교육적 지도를 통해 누군가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교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의 변화는 매우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지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지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련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였겠습니까. 변화에 대한 목표, 끊임없는 기다림을 실천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교육과 스승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기적을 연주하는 안순이 선생님

안순이
죽전고등학교 교사

|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 죽전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안순이입니다. 저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무관심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장애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학생들에게 악기 교육을 통하여 긍정적인 비전과 꿈을 키워주기 위해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이고 감동이기에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 선생님은 바이올린 전공을 하셨음에도 국악 교육에 대한 열정 또한 남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 3월, 용인의 한 중학교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곳으로 전교생의 40%가 기초 수급자였고 조손·편부모 가정 등이 많았으며 경기도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무관심으로 인해 방과 후에도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교교육환경도 열악하여 음악실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도 피아노와 가야금 3대, 타악기가 전부였습니다.

음악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은 무표정하고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보이며, 포기가 빠르고 자율성이 부족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악기교육을 통해서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1인 1악기 실기 중심 악기 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악을 통해 행복한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안겨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여 국악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직접 국악 연수를 받아가며 아이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초창기 악기지도를 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악기 보유였습니다. 특정 교과에 학교 예산을 배정하여 악기를 지원할 수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근무지에서 음악 순회 교사를 할 때 음악실에 잠자는 악기가 많은 것이 생각나, 주변 학교에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악기들을 대여하고 수리해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열악하나마 조성하여 국악관현악반을 7대 악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악기가 더 많이 필요했는데 학교예산으로는 어려워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받은 상금을 모아 악기를 하나 둘씩 구입해 나갔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4H)에 가입하여 각종 대회, 봉사활동 연주, 불우이웃 돕기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이 주변 학교에 모범이 되어 우수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인정되어 청소년단체(4H)에서 중장기적으로 악기 지원을 해주어 시골에 작은 학교가 국악예술고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의 국악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워너비앙상블'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장애 학생 바이올린 합주 동아리 지도를 통한 통합교육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 당시 근무교에 부임한 특수선생님께서 특수학급의 한 학생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인다며 그 학생에게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주고 미소 짓게 해 주고 싶다고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올린을 가르쳐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이 학교는 실기 중심의 악기 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에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악기를 지도하기 전,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첫 시간에 바이올린을 손에 쥐어 주었을 때 아주 미미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후 점차 저도 학교에 등교하여 하루 종일 존재감 없이 지내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로 구성된 바이올린 합주 동아리 '워너비앙상블'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워너비앙상블'은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초급반을 운영하며 오후에는 중·고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워너비앙상블 음악캠프'를 운영하고 향상음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하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장애 학생, 일반 학생 모두의 장애인식 개선 면에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악보를 보고 이를 연주하는 놀라운 일을 이 학생들이 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바이올린 연주력 향상은 물론 자신감을 얻고 사회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바이올린을 함께 배우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치유 받습니다.

워너비앙상블을 운영하면서 저는 '누구나 쉽게 배우는 바이올린' 교재를 만들고 이에 맞는 교수법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지도하는 데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학생들용 교재와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바이올린'이었으나, 이 교재와 교수법으로 지도해 보니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는 누구나가 다 쉽게 배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 교재와 교수법을 적용하여 지도할 수 있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운영에서 선생님께서 느낀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면 더 좋을까요?

10년 전 초창기에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활동비 및 악기 지원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꾸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학교에서 동아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작하고 운영했던 것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주말에 타교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연습실을 확보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통한 지도교사 양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해놓은 바이올린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문화예술이 낙후된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장애·비장애 학생을 아우르는 통합교육의 장으로 확장되어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악교육을 통해 선생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악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소리를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음악교육을 통해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음악이 각자의 삶 속에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삶에 스며있는 음악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음악에 잔잔히 물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음악과 학교 밖에서의 음악을 온전히 다르게 분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의 생활화를 지도하고자 합니다. 삶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교육을 통하여 미래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문학적·예술적 소양을 갖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가교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 선생님께서 교직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육 본연의 모습을 바르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학교 교육이 정립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교육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상이 변하고 세태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가르침과 배움의 자세는 늘 올바르게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육을 통한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이 있고, 학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 바른 배움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선생님은 학생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학부모의 지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공부하고 있을 예비 선생님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속 시구처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기쁨이든 행복이든 열릴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예비 선생님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문화 탐방

우연을 예술로 바꾸는 힘,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Serendipity)〉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단순한 발견을 예술로 승화한 전시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품의 영감이 된 최초 이미지와 이 이미지로부터 비롯된 작품들을 통해, '우연한 발견'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관객들 또한 향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찰나의 순간과 사건을 예술 작품으로 빚어낸 작가들의 세심한 관찰과 풍부한 창조력을 감상하러 다함께 전시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볼까요?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Serendipity)〉

- 전시장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사비나 미술관
- 전시기간: 2020.01.03.(금)~2020.04.25.(토)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관림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오후 5시 입장마감)
- 관람요금: 성인 8,000원 중·고등학생(만 12세~만 18세) 6,000원 유아 및 초등생(36개월 이상~만 12세) 4,000원
- 관람문의: 02-763-4371, 4410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뜻밖의 발견' 곧 'Serendipity'라고 한다. 이처럼 뜻밖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지닌 세렌디피티는 우연성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세렌디피티를 '우연'에 의지한 채 기다려야만 하는가.' 이번 전시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의 세렌디피티적 발견과 이로부터 창조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질문에 대한 각자의 해답을 이 글의 말미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자.

| 일상 그리고 세렌디피티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일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너무나 친숙한 것이기에 우리는 종종 이에 지루함마저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작가들은 이러한 일상 또한 훌륭한 세렌디피티가 될 수 있음을 역설(力說)하고 있다.

남경민 작가는 어느 날 문득 작업실이 곧 '자신'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좋아하는 물건, 책, 작업 중인 그림 등으로 가득 찬 일상의 그 공간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은밀한 내면을 노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이를 계기로 렘브란트, 마네, 세잔, 고흐 등의 서양화가뿐 아니라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등 미술사 대가들의 작업실을 재현하는 '화가의 방' 연작을 그려내기 시작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가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대가들의 작업실은 관람객들을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최현주 작가는 5세 무렵 어머니가 만들어 준 계란 프라이로부터 '향기가 가득한 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의 체험은 긴 세월이 흐른 후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계란 프라이에 꽃, 식물, 새와 같은 이미지를 결합하는 한편, 미각, 청각까지도 작품에 녹여냄으로써 관객들에게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함명수 작가는 '새로움의 충격 모더니즘의 도전과 환상'이라는 책표지에 실린 '모피 찻잔'의 사진을 보고 번뜩이는 영감을 얻게 되었다. 모피의 이미지는 작가의 추억 한 편에 남아있는 어머니와 누이의 뜨개질 행위와 결합되었고, 이는 붓 터치만으로 털의 질감을 모사하는 작품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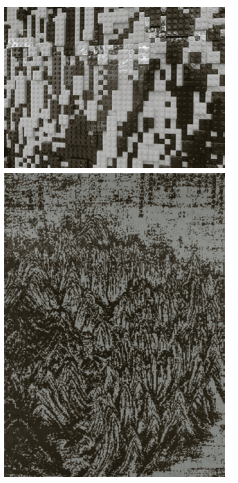
세 작가의 세렌디피티는 작업실, 계란 프라이, 책표지와 같은 일상적인 소재로부터 비롯되었다. 매일 보는 작업실, 흔히 먹는 계란 프라이, 무심코 지나치기 마련인 책표지가 예술 작품의 모태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이들이 이렇게 일상의 우연적 발견을 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연'을 '우연'으로만 취급하지 않는 세심한 관찰력이 아닐까 싶다. 우리도 어느 땐가 우리에게 주어질 세렌디피티적 순간을 위해 항상 깨어있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자연 그리고 세렌디피티

자연은 예로부터 수많은 예술 작품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처럼 자연과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앞으로 소개할 세 명의 작가 또한 자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세렌디피티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009년 국제 사막 프로젝트를 위해 몽골의 욜링 암(Yolyn Am–독수리 계곡)을 방문한 성동훈 작가는 마을 뒤편에서 바위산을 뛰어다니는 산양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또한, 이 산양이 '산 할아버지'로 불리며 몽골 사람들의 친구, 가족,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곧 예술작품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때 작가는 산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근대의 동전과 청화백자를 재료로 삼아 산양의 몸과 뿔을 표현해 낸다. 이렇게 탄생한 산양은 지나간 역사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오묘한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현대적 가치에만 경도되어 있는 현 사회의 풍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한다.

황인기 작가는 작업실 주변을 산책하던 도중 무심코 바라본 자연 풍경으로부터 세렌디피티적 순간을 맛보게 된다. 공업용 소재로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작가 특유의 기법이 탄생된 순간이었다. 자연과 공업용 소재의 결합, 자연미와 인공미의 이러한 조화는 회화를 전공하기 전 응용물리학을 전공한 작가의 이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초기작에서 리벳이라는 금속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리벳을 박는 작업 중 허리 부상을 입게 되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재료를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모색 끝에 작가가 선택한 재료가 바로 레고블록, 크리스털과 같은 인공재료였다. 뜻밖의 발견이 뜻밖의 기법을 태동하게 하였듯, 뜻밖의 부상이 작가로 하여금 뜻밖의 재료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황인기 작가의 작품은 세렌디피티의 연속 속에서 완성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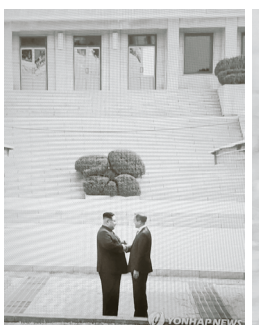
두 작가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세렌디피티를 경험하였다는 점, 이를 작품으로 발현시키는 데 있어 저마다의 생각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공의 결합은 모순적으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독창적 결합은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뜻밖의 발견이 창조적 사고와 결합될 때 우연은 이렇듯 창조적 예술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 차이 그리고 세렌디피티

우리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에 집중한다. 까만 바탕에 하얀색 점이 찍혀있다면 그 하얀 점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환경과 문화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자신이 처한 환경과 문화가 타인의 그것과 차이 날 때 우리는 보통 그 차이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부터 때로는 흥미를,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곤 한다. 그럼 이제 환경과 문화의 차이가 야기한 세렌디피티를 살펴보며, 작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유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유근택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분수대 앞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분수가 뿜어내는 물줄기에서 세렌디피티를 경험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자연의 이치를 위반하고 있는 분수로부터, 작가는 자연의 이치를 중시하는 '동양'과 이러한 순리를 거스르는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발견을 '분수 연작'으로 그려냄으로써 동·서양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다. 한지에 분수를 수묵 채색함으로써 두 문화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한 것이다.

홍순명 작가는 파리 유학시절, 동양인으로서의 소외감을 느꼈다. 서양의 낯선 환경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러한 소외감은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의 독서 경험과 결합하여 세렌디피티를 일으킨다. 홍순명 작가는 이를 통해 중심인과 주변인의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 가운데 주변인의 삶에 집중하게 된다. 그는 중심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주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세계 주요 언론 보도 이미지들 가운데 주변 이미지만을 추출하여 작품을 탄생시켰다.



동양과 서양의 조화, 주변에 대한 재인식. 작가들은 이렇듯 문화 또는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낯섦의 세렌디피티를 극복하여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창조해 내고 있다.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 우리는 이러한 세렌디피티가 실제 작품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연을 뛰어넘는 세심한 관찰력, 융합·결합 능력, 창조력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세렌디피티를 경험한 작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 온 사람들이었다. 사실 세렌디피티라고 하지만 이는 하나의 실마리였을 뿐, 그들이 세렌디피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간의 노력이 쌓여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즉,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는 이렇게 말한다. "순각적인 영감은 그것을 얻으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하고 고심해 온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다."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세렌디피티를 '우연'에 의지한 채 기다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해답, 이제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 사진 출처: 사비나 미술관

2019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및 학위논문

▲ 가정교육전공

김호정 청소년 영양지수(NQ-A)를 활용한 서울지역 일부 고등학교 학생의 식행동 및 삶의 질과의 관련성 연구

박현진 학점중심과정

▲ 간호교육전공

김영애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과 개인자원 관련요인

문하나 수술 중 발생하는 유해 연기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소영 패출리 오일 향흡입이 응급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공감만족, 공감피로 및 소진에 미치는 효과

이승희 성조숙증 여아의 부모양육태도 인식과 삶의 질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허유미 사업장 근로자의 헌혈의도와 관련된 생태학적 요인

▲ 교육방법전공

박경민 언어적 장치가 토의·토론 학습에서 개방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용도 플립러닝을 활용한 개별화 수업이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서현 중등 임용수험생들의 임용학원에 대한 인식

▲ 교육정보전공

정혜진 대학 입학상담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홍진표 요약하기와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생각코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분석

▲ 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오규성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적 자본 축적에 관한 연구

임미옥 대학 전공과목 영어강의와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J대학 영어강의 및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전공

강영미 문학 작품 재구성 단원의 비판적 검토 -2015 개정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김성희 아버지 부재 서사의 비교 연구: 김원일과 오종희의 소설 비교

서윤경 수능 연계 교재의 문법 내용에 대한 연구

성윤재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고등학생의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송정서 국어 교과서의 영역 간 통합 양상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오혜원 결혼이민자의 민원 서식 이해와 작성 수준에 관한 연구

정송희 핵심 질문을 활용한 소설 수업 방안 연구

최윤지 상징적 표상을 활용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사례 연구

홍유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비평교육의 양상과 문제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효진 학점중심과정

박재현 학점중심과정

오은희 학점중심과정

이선화 학점중심과정

조성덕 학점중심과정

허윤정 학점중심과정

▲ 기업교육전공

강예원 A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관리자(영업팀장) 코칭행동과 수퍼바이저의 직무성과와의 관계

문인준 H사 구성원의 직무자율성과 조직지원인식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현택 K그룹 신입사원이 인식한 팀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의 매개효과

이인규 IT 중소기업에서의 세대별 일의 의미와 정서적 조직몰입의 인식차이 및 관계

정완용 제조업 연구개발인력의 조직지원인식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조형주 대기업 제조업 사무직의 무형식학습과 일몰입의 관계

지근영 리조트기업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수민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자 코칭행동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 도덕·윤리교육전공

이제욱 중학교 도덕교과서와 피터싱어의 생명윤리

김현철 학점중심과정

서희 학점중심과정

이한라 학점중심과정

▲ 미술교육전공

박채희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기반한 시각문화 미술교육(VCAE) -중등미술교육에서 학생의 개인 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박희주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사회참여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지상 미디어에서 나타난 여성성 프레임에 대한 고찰 -한국의 대중미디어를 중심으로-

신채린 미술교육에서 여교수자의 발화에 담긴 여성 편향적 지도 고찰을 위한 실행연구 -남녀 아동의 성차와 미술 교원의 여성 편중 현상을 중심으로-

이은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모티콘 제작 및 소통수업을 중심으로-

이정은 자화상을 활용한 한국화 교육안 개발 -김홍도의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를 기반으로-

이주연 뉴미디어의 확산과 청소년의 대중문화 수용에 따른 시각문화교육 교수 학습 방법 연구 -2015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지인 박물관·미술관의 비판적 다문화교육 연구 -경상남도 김해시를 중심으로

임서하 창의력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종이 모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장희정 포토몽타주를 활용한 꿈의 시각화 지도 방안 연구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최인희 장소기반 학습의 미술교육적 의의

한정석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 작품 감상 수업을 통한 동성애자 인식 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기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정하 학점중심과정

권민정 학점중심과정

이유진 학점중심과정

전상원 학점중심과정

정동욱 학점중심과정

▲ 상담심리교육전공

김미진 자살유가족의 가족세우기 애도경험이 죄책감, 우울, 자존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김우근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은둔형 외톨이 경향, 고통 감내력의 관계 -여가만족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지현 중학생의 소속감 지향성과 불안의 관계

김현경 청소년 자해동기 프로파일과 상담태도 간의 관계

박인석 직장인의 경력관리행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소속감지향성을 매개로 하여

이지예 디자인전공 대학생의 학업발달 모형 검증

정수연 청소년기 SNS과몰입의 위험요인과 예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황소영 자기개념명확성과 정서인식명확성 및 공감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하나 학점중심과정

▲ 생물교육전공

권현석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생명과학II, 고급 생명과학 교과서와 일반 생물학 교재 연계성 분석 : 세포 호흡 단원 중심으로

공지현 학점중심과정

최평근 학점중심과정

▲ 수학교육전공

김진영 수학 영재의 성격유형별 소집단 구성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과 수학적 창의성 분석 - 창의적 산출물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김화경 일대일 동료멘토링을 활용한 수학 수업활동이 수학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장이교 수학체험전 활동이 수학 수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 과정을 중심으로

김다은 학점중심과정

김희경 학점중심과정

성연섭 학점중심과정

이승현 학점중심과정

이혜리 학점중심과정

임채준 학점중심과정

장진희 학점중심과정

최소연 학점중심과정

최현서 학점중심과정

▲ 역사교육전공

김동현 『三國史記』金庾信 列傳 내러티브 연구

김세연 문화재 활용 수업의 양상과 역사교사의 인식

이시형 중학교 역사교사의 수행평가 실시 양상과 인식 -서울 지역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장예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임진왜란 서술에 대한 평화교육적 모색

▲ 영어교육전공

강지은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EFL 학습자의 논증문에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 인과관계 표지 및 일관성 유형 비교

김바미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화용적 인지능력 조사연구

김홍민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발음인지도에 관한 연구: 알파벳 C와 G의 발음을 중심으로

서은주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영미문학읽기: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수업

설정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과 영어 교과서 분석 -중학교 1,2학년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안지영 수능영어듣기 영역이 절대 평가의 점수체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은비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모음 길이 인지 및 현황 연구 -폐쇄음에 선행하는 모음 길이 차이를 중심으로-

이다은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활용한 Aladdin 원작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비교 연구 -주제, 계층, 외양, 젠더 묘사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이승주 다문화주의 평가도구의 개정을 통한 영어 교과서 비교 분석 -2007·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영채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활용한 그림형제의 동화 The Frog King의 시대적 변용 분석 -젠더, 인종 및 외모, 계급에 대한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이윤진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논설문에 나타난 담화표지 비교연구 -Coh-Metrix를 이용하여-

이정원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어휘응집성(lexical cohesion) 사용 비교 연구

정민아 자유학기제 영어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실태와 원인분석

조선경 다문화 청소년의 영어 학습 경험과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연구

최의호 Intelligibility, Accentedness, and Prominenc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Pronunciation: Focusing on the Proficiency Effect

▲ 영재및특수교육전공

최승희 학점중심과정

▲ 일반사회교육전공

권영지 학점중심과정

▲ 일어교육전공

문필선 IT 분야 진출을 위한 일본어 교육 -NCS기반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 체육교육전공

김준희 초등학교 학교스포츠 클럽 참여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

서승완 체육활동이 육군 병사들의 복무적응 및 군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신욱 단기간 크레아틴 섭취가 일회성 저항 운동 시 손목 및 머리 떨림에 미치는 영향

임현경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강문창 학점중심과정

김나래 학점중심과정

김지우 학점중심과정

박아영 학점중심과정

박영수 학점중심과정

백상현 학점중심과정

백창현 학점중심과정

신기섭 학점중심과정

유승아 학점중심과정

유혜림 학점중심과정

임희준 학점중심과정

전왕표 학점중심과정

정지혁 학점중심과정

홍승현 학점중심과정

황효영 학점중심과정

▲ 컴퓨터교육전공

성소영 C 프로그래밍 자동 채점 시스템

제승모 Efficient Electric Power Production Mechanism through Big Data-Based Demand Forecasting

▲ 평생교육전공

김은경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직업능력향상교육 참여자의 학습실재감과 학습성과의 관계

김자람 대기업 근로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사화영 서울지역 평생교육사의 지식공유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혁신행동의 매개효과

신진우 수도권 K전문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참여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엄경화 수도권지역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사의 직무수행과 경력몰입의 관계

오경택 A대학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여가만족과 학습몰입의 관계

황선희 수도권 평생교육기관 여성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에 따른 직무만족의 관계

황현정 사이버 대학 원격교육 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희 학점중심과정

▲ 한국어교육전공

권소라 음절배열제약의 대조분석을 통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음운 현상 산출 양상 연구

김라엘 숙달도에 따른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에 대한 산출 양상 연구

김지운 영상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학습 모형 및 실제 연구 -플립 러닝 모형에서 더빙 활용을 중심으로-

오한수 토론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토론 담화 교육 내용 연구

윤미현 의미 추론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제시 방안 연구 -정의 중심 어휘 제시와 문맥 중심 어휘 제시의 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선경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교육 목록 선정 및 교육 방안 연구

이정현 과제 유형에 따른 중급 이상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유창성의 차이 -낭독하기와 스토리텔링 과제 수행 비교를 중심으로-

이초미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요구 분석 연구

ZHAO SHUJUN 중국 내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발표 교육 방안 연구

김두리 학점중심과정

김보미 학점중심과정

김진원 학점중심과정

안지영 학점중심과정

최민음 학점중심과정

한지나 학점중심과정